

<양성평등 캠퍼스 만들기 캠페인 공모전 -에세이 부문- 수상작>

1. 최우수상

01년생 ○○○ : 나는 울었고 엄마는 웃었다.

나는 울었고 엄마는 웃었다.

82년생 김지영을 접하게 된 것은 도서관의 새로 들어온 도서 코너에서였다. 나의 모교는 어촌 마을에 위치한 학교였으므로, 82년생 김지영이 출간되고도 사회적으로 논란을 빚고 있었을 때 즈음에서야 누군가 신청해준 덕분에 도서관에 들어오게 되었다. 책을 읽고 있다는 근황을 전한 것만으로도 비난과 검열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82년생 김지영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성 편향적이고 피해의식이 포함되었다는 연유로, 혹은 역차별을 조장한다는 이유에 서였다. 비난받는 대상이 여성인데, 비난하는 대상 속에 여성이 있다는 사실에 울화가 치밀어 오르면서도, 통탄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책의 내용은 그저 김지영 씨, 80년대 태어난 여성들, 우리 엄마, 그리고 나의 일상에 존재하는 장면일 뿐이었다.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 가부장제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아둔 집합일 뿐이었다. 비난하는 자들의 분노는 남성중심주의 사회의 흐름과 정반대의 시각을 자각함으로써 마주하는 불편함을 피하고 싶은 이기적인 마음일 터이다.

16년 전, 호주제가 폐지됐다. 이제는 호주제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 익숙하기만 하지만 나는 아무런 저항 없이 아빠의 성씨를 따르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67년간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억압하던 족쇄가 우리나라 형법에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낙태한 여성에 대한 불쾌한 시선이 사라지지는 않았다. 그림을 수십 년 간 그린 사람의 작품이 한순간 완성되듯, 호주제와 낙태죄 또한 수십 년 자리매김하다 한순간 설 자리를 잃었으나 제도가 남긴 잔해와 낙인은 여전하다. 폐지의 순간을 이룩하기 위해 존재했던 피와 눈물은 아직 닦이지 않았다. 남동생이 받은 용돈을 받지 못했던 경험, 비혼을 선언할 때 돌아오는 이기적이라는 대답, 여성 공무원의 치마와 구두, 설 다음 날에야 방문하는 외할머니 댁. 온갖 사소한 일에도 가부장제는 따라붙는다. 이 사소함을 알아차릴 수 있는 순간의 반짝임을 경험하고 기억해야 한다.

“사람들이 나보고 맘충이래. 죽을 만큼 아프면서 아이를 낳았고, 내 생활도, 일도 꿈도, 내 인생도, 나 자신을 전부 포기하고 아이를 키웠어. 그랬더니 벌레가 됐어. 난 이제 어떻게 해?” -82년생 김지영 중에서

나의 첫 번째 반짝임은 ‘맘충’이라는 단어에 대한 반감이었다. 우리나라에 현모양처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어렸을 때만 생각해봐도, 꿈을 발표할 때 현모양처를 미래직업으로 꼽는 초등학생들이 결코 적지 않았다. 가부장제 사회는 나를 비롯한 우리 반의 어린 여자 친구들에게 현모양처란 여성이 최종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꿈이라고 부추기며 세뇌시켜왔다. 이는 단연 우리 학교에서만 있었던 현상이 아닐 것이다.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성인 남성들은 자신이 결혼할 상대, 혹은 이상형을 현모양처로 꼽아왔다. 여기에는 가정의 살림살이를 맡아 꾸려 가는 안주인이자 집안일을 잘 다스리며 남편을 도와야 하는 아내의 모습을 요구하는 무언의 압박이 존재했으리라. 현모양처가 과연 소녀들의 자아실현을 위한 위대한 꿈일 수 있는가? 이는 남성의 조력자 그 이상으로는 성장할 수도, 변화할 수도 없는 꿈일 테다. 한국의 어느 남성이 여성의 조력자가 되고자 발버둥 치겠는가. 자신의 여자를 현모양처의 모습으로 꾸며두고 제 어머니께 며느리로 가져다 바치는 이 기이한 현상은 가부장제를 학습한 어느 남성이 가부장제를 재생산하고, 재현하고자 지니는 욕망일지도 모른다. 자신의 어머니는 숭배의 대상이지만, 자신의 아내는 조력자여야 하고, 타인의 어머니는 혐오의 대상이 된다. ‘맘충’은 그렇게 생겨났다.

우리 엄마는 ‘○○이 엄마’로 20년을 살아오셨다. 소설 작가를 꿈꾸던 조미영 씨는 전업주부이자 ○○이 엄마가 되었다. 우리 엄마는 나를 너무 사랑해서 국어국문과 진학을 포기하셨다. 나의 성장을 위해 엄마의 청춘을 내게 주셨다. 그런 엄마가 바깥에서 ‘맘충’이 되어 불리었을 때, 나는 그때서야 ‘맘충’이라는 혐오표현 대한 의심과 조미영 씨를 찾아드려야겠다는 의무감이 생겼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을 벌레로 만든 그 표현이 소름끼치도록 싫었고, ‘태권도 학원 허위 고발 사건’을 순식간에 ‘태권도 맘충사건’으로 만들 수 있는 사회의 신속함이 원망스러웠다. ‘-녀’ ‘-충’ 등의 접미어는 쉽고 간편하게 여성을 혐오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일상에 스며든 혐오가 부지불식간에 어떠한 문제의식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혐오가 일상화된 단면을 우리 사회가 보여주고 있었다.

나의 어머니는 벌레가 되어 있는데, 사회는 나를 현모양처로 키우고 있다니, 가부장제 사회의 끊임없는 가스라이팅은 여성의 감정까지도 검열한다. 우리 삶 속에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또 다른 차별 중 하나는 여성은 분노해야 마땅한 일에도 ‘화내지 말 것’을 요구받는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엄마는 자식에게 화를 내선 안 되는 사람이며 여성이 화를 냈을 때 ‘너무 감정적이다’라는 말이 돌아오는 일이 당연한 현상이 되어 있다. 나 또한 ‘화 안 내는 법’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 등을 인터넷에 검색하며 조신하고 암전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한 경험이 있다. 남자로부터 몰래 사진을 찍히고 얼굴에 대한 평가를 받으면서도 웃어넘기려 부단히 노력했다. 명절이면 엄마와 내가 열심히 차린 큰 상에는 남자들이 모여 앉고, 우리는 큰 상에 놓인 밥그릇이 하나 둘 비워질 때 즈음에서야 작은 상에 앉아 수저를 들 수 있는 합당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화낼 수 없는 분위기는 조성되어 있다. 여성의 희생이 고스란히 녹아든 폭력적인 전통까지도 나를 비롯한 나의 친구들, 대학동기들도 자연스레 경험했을 사소한 일상이다. 그럼에도 내면에 버젓이

존재하는 분노를 마주하지 않고 간과한 이유는 분노를 표출함으로 인해 벌어질 상황이 공포스럽기 때문이다. 분노는 분노의 주체와 객체 모두가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남성의 분노는 이따금 권력의 상징이 되기도 하지만, 여성의 분노는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을 상징한다. '맘충'의 이름표를 달고 벌레가 된 어머니들의 분노는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인 사람으로 낙인찍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불편함을 마주해야 한다. 감정을 표현하는 주체의 성별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동일하고 일관된 반응을 보여야 한다. 사회에 뿌리내린 가부장제가 여성에게 씌운 관념을 똑바로 바라보고 불편함을 온전히 받아드리는 것, 이것이 수평적인 구조를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남성중심주의의 흐름에 반하는 낯선 장면의 존재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누군가는 다 차려진 상 앞에서 허리 숙이고, 식사하고, 과일도 먹고 TV도 보지만, 부엌에선 제사상을 차리려 허리 숙이고, 수저를 엮고, 과일도 깎으며 제기도 닦는 며느리의 존재를 지워선 안 될 노릇이니까. 여태껏 편하고 당연하게 누려온 것은 치중된 권력으로 인한 악습임을 인지하고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등하불명(燈下不明)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우리나라 속담으로는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표현한다. 등잔불은 빛 줄기 하나 없는 방을 환히 비출 수 있을 만큼 밝고 요긴하게 쓰였다. 그러나 그 밝은 불빛 아래는 어둡게 드리워진 그림자 때문에 오히려 깜깜하다. 가부장제는 불빛 아래 그림자에 가려진 등잔받침과 같다. 그림자 밑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의구심을 가질 수도, 변화시킬 수도 없다.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가부장제의 존재와 남성중심적인 문화로 인한 차별을 인지해야 하며, 사회의 고정관념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호주제, 낙태죄 폐지와 같은 역사적인 일들 또한 그저 시간이 흘러 이뤄진 결과가 아닌, 여태까지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던 상황에 의문을 제기하고 차별에 대해 대항하여 일구어 낸 기록적인 사건이다. 실생활과 온라인 매체에서 난무하게 사용되는 혐오표현에 대한 불편함과 불쾌함을 표출해야 하며, 분노해야 마땅한 일에 대해 나의 감정을 억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구성원들 또한 우리가 서 있는 이 운동장이 기울어진 상태임을 알고, 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부장제라는 길고 긴 역사 위에서, 한국 여성으로서 경험하는 모순과 갈등은 깊어진다. 가부장제는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성차별적인 전통이다. 이를 무력화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성별에 따른 구분이나 차별 없이 개인의 특성과 목소리를 존중하며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모두 함께 극복해야 한다. 또한, 정보화 사회인 현재, 성차별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sns, 언론, 미디어 상에서 혐오 표현과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는지 주의하고 이를 지양해야 한다. 대중매체는 성차별적인 내용을 노출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이 비판적으로 미디어를 받아들이는데 혼란을 주곤 한다. 때문에 현실뿐만 아니라 인터넷 환경 속에서도 성차별적인 문화와 미디어에 대해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노력의 발자국이 하나 둘씩 모인다면 혐오와 차별 없는 양성평등 캠퍼스가 실현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2. 우수상-1

96년생 ○○○ : 양성평등으로 향하는 길

양성평등. 그것은 다수의 사람들이 막연하게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현실은 그에 전혀 미치지 못했다고 대다수가 말한다. 개인적인 사건으로, 정확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사회가 발전해감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한다. 예를 들어서, 호주제를 폐지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법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가와 민간차원에서 남아선호사상의 타파를 위한 노력을 통해서 남아선호사상이 지금의 한국에서는 사실상 남아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요즘은 오히려 딸 하나만을 낳고 살겠다는 부부들도 늘어나고 있는 실상이다. 이러한 예시를 통해서 1960년대와 2020년대의 양성평등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고려해보자. 60년대의 여성 인권이 더 높았다거나, 동등했다고 주장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분명히 그때와 비교하여 현재 대한민국의 양성평등을 바라본다면 확실히 평등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양성평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는 역설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가장 양성평등에 가까워진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더욱이, 요즘은 기존까지 사회적으로 약자였던 여성의 양성평등에 대한 주장만큼, 남성의 권익을 보장하라는 남성들의 목소리도 서서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그 원인이 무엇이겠는가? 어떠한 이유로 하여금, 역사상 가장 양성평등에 가까운 대한민국이 양성평등에 대한 논쟁으로 뜨거운 것이란 말인가? 필자로서는 이러한 사회의 흐름에 대해서 남성으로서 자신의 경험을 내어 보이지 않을 수 없다.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내 기억 속 가장 오래된 차별은 초등학교 2학년 때였다. 당시에는 구구단을 외우는 것을 학교에서 가르쳤었는데, 필자를 비롯하여 몇몇은 구구단을 제대로 외우질 못했다. 그때 안경을 쓴 남자 선생님이 담임이었는데, 여자 아이들에게는 체벌을 가하지 않고 남자 아이들에게만 체벌을 가했었다. 회초리로 손바닥을 맞는 것이었는데, 얼마나 세게 맞았던지 중지와 검지의 손톱 속 연약한 살이 멍에 들었을 정도였다. 3학년이었던 당시, 담임 선생님께서 아침 출석시간에 “여자는 머리가 좋고, 남자는 힘이 썩다.” 같은 근거없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다. 너무 어렸던 당시의 필자와, 같은 동창들은 이러한 선생들의 태도를 보고 비판 없이 학습하기 시작했다. ‘여자는 약자니까 남자들이 희생해야 하는구나.’, ‘남자니까 몸 쓰는 일은 전부 남자가 하는 게 맞구나.’, ‘남자보다 여자가 더 똑똑하구나.’ 같은 이야기들을 말이다. 시간이 더욱 지나며, 중학생 때는 아버지가 해외로 출장을 가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나에게 이러한 당부를 하셨다. “아빠가 집에 없으면 내가 집안의 가장이다. 엄마랑 동생을 잘 챙겨야 한다.” 지금 와서 생각하지만,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그때의 심적인 부담감은 고작 중학생이 짊어지기에 너무 무거운 일이었다. 부모님은 성적에 대해서 내게 매우 엄격한 편이었다. 집에 오면 항상 공부를 할 것을 강요받기도

했고, 성적이 좋지 않으면 엄청나게 혼이 났다. 나는 그때, 한번씩 PC방에 들러서 가짜 성적표를 만들어서 집에 가져가곤 했었다. 나에게는 세 살 터울의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에게는 성적과 관련하여 아무런 혼을 내지 않았었다. 특히, 아버지가 여동생을 더욱 편애했었다. 아버지는 장난스레 동생을 '공주님'이라고 불렀는데, 나에게는 항상 '야'라거나, '○○○'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다른 부모들이라면 '아들'이라는 칭호가 매우 평범하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표현이지만, 나에게 '아들'이라는 호칭은 낯설기만 하다. 또한, 이때 즈음 한 수학학원에 다녔었는데, 문제를 틀리거나 시험 성적이 낮으면 어마무시하게 생긴 몽둥이로 손바닥을 내려쳤다. 그곳에서는 여자들도 매를 맞았다. 하지만, 맞는 강도와 횟수가 극적으로 차이가 났다. 하루는 나와 한 여학생이 동점으로 꼴찌를 했던 적이 있다. 그때부터 나는 수학학원 원장에게 '돌대加里'라는 별명이 붙었다. 가끔 책상에 올라서서 수업을 듣게 하며 창피를 준 적도 있었다. 물론, 나와 같은 성적이었던 여학생에게는 아무런 벌을 주지 않았었다.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에서 나는 당당하게 학원 내 1등을 해냈다. 그 사실을 학원에 등원하여 알리고 더 이상 이런 학원에 다니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후, 필자는 그때의 차별과 조롱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소위 말하는 '수포자'가 되었다. 그 사건 이후로 수학문제를 볼 때면 그때의 모멸감이 극도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애석하게도, 그로부터 10년가량 지난 지금도 수학만 보면 거부감이 여전히 남아있다. 나는 중학교 시절,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의 학교와 학원, 그리고 가정에서 남자라는 이유로 각종 차별과 억압을 당해왔던 사실이 있기에 '만약에 내가 여자였다면, 이러한 차별과 과도한 짐 지워주기를 당하지 않았겠지?'라는 의문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에까지 들어서도 이따금 드는 의문이었다. 물론 남자이기에 수혜를 본 것도 분명하게 존재했다. 설날과 추석에 큰집으로 올라가면, 용돈을 만원에서 이만원 정도 더 받았다. 그리고 남자로 태어나서 그런지, 키가 194정도 되어서 콘서트 등에서 남들보다는 더 편하게 봤던 것 같다. 애석하게도, 이것 외에는 기억나는 것이 전혀 없다. 혹자는 이러한 나의 경험에 대한 서술을 보고 '그래서 남성이 피해자인가?' 라는 등의 질문을 던질지도 모르겠다. 필자로서 위와 같은 경험을 말한 것은, 여성만 차별을 받고 남성은 받지 않는다는 극단적인 여성우월주의자의 주장에 대한 반론이기도 하며, 기본적으로 양성평등이라는 관점에서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남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받는 등의 일이 없어야 한다는 주장을 위한 예시일 뿐이다. 앞선 예시에서도 볼 수 있듯, 나 또한 가부장제의 피해자였고, 남성이기에 우월해야 한다는 강요로 고통을 겪던 남성이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남성으로서도 소수만이 가부장적-남성우월주의적 사회에서 이득을 보았으며, 그 외의 남성들과 여성들이 모두 피해를 봐왔다고 할 수 있겠다. 필자의 경험을 통한 조금은 다른 관점을 보았으니, 이제는 건설적인 이야기를 할 차례가 온 것 같다. 필자는 요즘 사회에서 양성평등에 대한 남녀간의 대립이 기본적으로는 양 극단에 있는 남성우월주의자와 여성우월주의자의 편협한 사고와 공격성에 근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남녀간의 갈등과 대립이 처음 시작된 것은 일베 저장소라는 사이트에서 시작했다.

한국 여성들 중에서 경제력이 없음에도 사치를 부리는 여성, 평소에 의무를 지지 않으면서도 권리만을 주장하는 여성등을 대상으로 김치녀라는 호칭으로 불렸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여성 자체를 비하하는 단어로 그 범위가 넓어졌다. 일베가 탄생한 이후, DC INSIDE 라는 사이트의 메르스 갤러리라는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시작한 여성우월주의자들은 메갈리아라는 사이트로 옮겨가며 페미니즘을 표방한 여성우월주의자들의 모임이 본격화 되었다. 인터넷에서만 활동을 하던 각각의 극단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익명성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서로를 헐뜯는, 소위 말하는 ‘그들만의 리그’ 였다. 하지만, 인터넷의 특성상 다양한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지켜볼 수 있다. 그로 인해서 각각의 극단주의는 점차 자신들의 세력을 불려가며 성장했다. 혐오는 혐오를 낳고, 그 혐오가 또 다른 혐오를 낳는 악순환이 계속됨에 따라서, 점차 인터넷의 한 구석에서만 일어나던 국지전이 아닌, 현실세계에서 시위라는 형태로서도 그들의 영향력이 이리저리 퍼지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기세는 마치 산에 불이 난 것 같이 퍼지고 있는데, 이는 불을 끄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보다도,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과 동시에,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자신들의 지지를 확보하려 하는 정치인들까지 가세하고 있는 탓이 크다. 결국에는 혐오의 악순환, 그중에서 자신의 이익을 피하려는 자들의 농간에 우리들이 불필요한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필자는 진정 제대로 된 방향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러한 극단주의자들이 더 이상 세력을 확충할 수 없게 억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산불과 같은 기세로 퍼지는 극단적인 사상에 똑같은 맞불을 놓아서 세력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극단주의자들이 말하는 ‘미러링’ 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사상을 전파시킴으로서 자신들의 이익을 꾀하는 것이 아닌, 보다 더 고차원적이고 양성평등이라는 대의에 더욱 가까워 질 수 있는 순수한 목적성을 가지고 모두가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이 지속성을 띄기 위해서는, 어느 한 집단만이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닌, 사회 전체적으로 가부장제와 남성우월주의, 여성우월주의등 현대 대한민국에 있어왔고, 또, 새로 생겨나고 있는 병폐들을 치료하여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는 것임을 끊임없이 재확인함으로써 순수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양성평등을 진심으로 바라고 원하는 남녀노소 모두가 공투해야 할 것이며,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필요로 한다. 미국의 사회 운동가이자 역사학자인 하워드 진이 이렇게 말했다. “이미 사태가 치명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중립을 지킨다는 것은, 그는 그 방향을 지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김대중 전 대통령도 비슷한 말을 남겼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이나 마찬가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달리는 기차 위에는 중립이 없다. 양 극단의 싸움을 방관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선의 방관은 악의 승리를 꽃피운다는 격언과 같은 상황이 될 것이다. 따라서, 건전한 사상을 가진 이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임을 보여 상황이 더욱 악화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매우 다행스럽게도, 아직은 목원대학교 내에서는 극단주의적인 여성우월주의와 남성우월주의자가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최소한, 수면

위로 드러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이러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 공고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양성평등 캠퍼스 만들기 캠페인’ 과 같이 성적인 가치 중립성에 입각한 학교 차원에서의 캠페인이 자주 열려야 할 것이며, 그와 관련되어 중립적인 입장에서 진행되는 양성평등에 대한 교양 및 특별 강연등이 열린다면 더욱 더 많은 학생들이 양성평등에 대해 건전하고도 진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할 것이다. 더욱이, 캠퍼스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성범죄등에 대한 예방 교육도 분명히 필요하며,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학교측에서 선제적으로 개입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여 적극적-지속적 조치가 후행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학교측에서 이러한 시스템들을 구축하고, 적극 홍보되어 실질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수혜를 보기 시작하면, 학생들이 스스로도 양성평등에 더욱 가까워지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양성평등 캠퍼스 만들기 캠페인’ 은, 목원대학교가 더욱 더 좋은 대학으로 변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목원대학교를 위해 또, 학생들을 위해 오늘도 고민이 깊은 밤을 보내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남긴다.

3. 우수상-2

00년생 ○○○ : 엄마가 전해준 가부장제

나 ○○○은 2000년생으로 부모님 두 분이 다 계시는 집안의 맏딸로 태어났고, 밑으로는 여덟살 차이가 나는 남동생이 있는 누나다. 이때까지 살아오며 양성평등이나 가부장제에 대한 주제로 대화를 할 때, “우리 집은 동생이랑 나를 특별히 차별하진 않아.”, “난 이때까지 내가 성별 때문에 차별받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라고 쪽 답해왔었다. 굳이 요즘같이 남녀 갈등이 심해지는 사회 분위기에 괜히 말 한마디 잘못하면 손가락질 받을 게 뻔하다는 생각에서 나온 회피와 친척 모임이 있을 때도 친척 동생들 중 가장 맏이라는 이유로 어릴 적부터 어른들 식사 자리에도 자연스레 내가 앉았던 것, 활발하고 털털한 성격에 씩씩한 딸이 마냥 좋다는 아빠의 웃음, 결혼 할 생각이 없다는 내 말에 별 말 없으시던 부모님의 반응과 주방에서 요리하는 아빠가 어릴적부터 익숙했던 이유였다. 쉽게 말하면, 주변 친구들이 말해주던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여동생에게 손찌검을 하는 오빠, 여자라고 차별하는 조부모님과 같은 가부장제와 남녀차별의 표본이라고 생각되는 뚜렷한 예시들이 내게는 조금 먼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유없는 폭력과 차별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고, 개중엔 범죄와 가까운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어찌면 나는 내가 칼에 찔려 죽지 않고 그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행운인 것 마냥 스스로 자기합리화를 했던 것이다. 글을 쓰기 전, 글감 정리를 하던 중 문득 이번학기 수강한 양성평등 강의에서 자주 들은 사회적 시선, 혹은 프레임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이미 사회적으로 통용되어 그게 개개인의 생각보다 우선시 되어 온 편견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어찌면 겉으로는 차

별받은 적 없다고 말하던 내가 그 프레임에 갇혀 그간 모른척한 남성중심적 문화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 가만히 생각해보니, 스물스물 수면 위로 떠오르는 소소한 기억들과 당시 느꼈던 쓸쓸한 감정들을 몇 자 적어보고자 한다. 시작은 내가 초등학생이던 열두 살 부터다. 그때부터 보육교사 일을 나가게 된 엄마 대신 당시 네 살 이었던 동생을 돌봐줘야 한다는 임무가 내게 주어졌었다. 엄마가 4시 정도면 퇴근을 하셨지만, 어린이집에서 하원하는 동생을 마중 나간 것도 열에 아홉은 나였고, 어린이집 방학이 겹치는 주엔 일찍이 가스불을 쓰는 게 익숙해진 내가 동생 끼니를 챙겨 줘야했다. “누나는 다 컸고 동생은 아직 많이 어리니까.”, “여자애라 야무져서 알아서 잘 하겠지.”라고 전화 통화를 하던 엄마의 말이 당시엔 나에게 대한 믿음과 대단한 특권처럼 느껴져 싫다 기보단 혼자 뿌듯해했었고, 그때 당시 남동생이 많이 어리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스스로 이상하단 점을 느낀 건 남동생이 그 당시 열둘이던 내 나이에 접어들고 나서부터였다. 여전히 엄마는 집을 비울 때 동생 밥을 챙겨주라고, 학원 시간에 맞춰 내보낼 것을, 숙제 검사를 해줄 것을 요구하셨고 내 할 일을 하기 바빴던 나는 그게 버겁고 귀찮았으며 열두살 ○○○도 충분히 어린 나이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학생이 된 지금도 나는 종강 기간과 동생의 방학 기간이 겹치면 나는 여전히 중학생 동생의 식사를 챙긴다. 엄마에게 이제 동생 스스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나이라고 말했지만 돌아오는 건 “남자랑 여자랑 같냐.”라는 아이러니한 말 뿐이었다. 생물학적으로는 다르지만 중학생 청소년이 한 끼 정도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건 똑같은 사람이라면 당연한 일 아닌가? 요리를 잘 하는 여자니까, 남자보다 꼼꼼하고 차분한 누나니까 남동생 밥 정도는 챙겨줘야 한다는 프레임이 내게도 은연중에 씌워졌다는 것을 열두 살의 나는 몰랐다. 두 번째는 내가 열여덟 살에 미술 입시 학원에 다니던 때다. 나는 또래 여자애들의 호리호리한 체형과는 거리가 먼 살찐 체형이었고 부모님은 그런 나를 못마땅해 하셨다. 그날 엄마가 차로 날 학원까지 데려다주셨는데, 같은 수업을 듣던 남자애들이 앞서 걸어가길래 뒤따라 뛰어가 인사하고 이야기를 하며 학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별거 아닌 그 모습을 자동차 앞 좌석에서 엄마는 내내 지켜보시다 내가 집에 왔을때 불 같이 화를 내시길, 그 이유가 걸어가던 내 뒷모습이 너무 뚱뚱해서 창피하고 꼴보기 싫었다는 이유였다. 덧붙여 같이 걸어가던 남자애들이 그런 너를 보고 뭐라고 생각했겠냐, 말은 안 해도 분명 비웃었을 거라는 말도 안되는 얘기에 정신이 아찔해졌다. 그런 엄마에게 나도 화를 내며 왜 내가 가만히 걸어가기만 해도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냐고, 그리고 같이 걸던 친구들도 그런 생각 할 친구들이 아니며 세상을 엄마만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피해망상증이라고 소리질렀다. 대답은 그렇게 당차게 했어도 엄마가 날 그렇게밖에 보지 않았다는 실망과 뚱뚱한 여자는 남자들에게 조롱거리라는 엄마의 췌기에소리지르며 흘린 눈물엔 수치심과 모멸감이 섞여있었다. 또래보다 살찐 체형의 남동생에겐 지금 살찌도 남자애들은 나중에 다 키로 간다는 관대한 처사와 또 남자랑 여자는 다르다, 라는 말 속에 담긴 여자는 살 찌서는 안 되고 가녀리고 예뻐야 한다는 구시대적 프레임에 상처받고 자존감도 많이 낮아졌던 고등

학생 시절 나를 기억한다. 아이러니 하게도, 두 기억 끝에는 나와 같은 여자인 엄마가 있었고, 나는 그럴때마다 엄마는 나랑 같은 여자면서 왜 내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가를 궁금해했고, 최근까지도 답을 찾질 못하다가 앞서 언급한 이번학기 수강한 성평등 수업에서 배운 내용과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을 글 쓰기 전 읽어보고 몇가지 깨달은 점이 있다. 남성중심문화에 우리 엄마는 나보다 더 일찍, 그리고 훨씬 많이 노출되었기에 내게 그런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하셨던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 우리 엄마는 75년생이다. 별로 풍족하지 않은 집의 막내딸로 태어났다. 조부모님은 아들로 태어난 삼촌을 더 많이 챙겨주셨고, 할머니 말에 의하면 엄마는 손이 많이 가질 않는 착한 막내딸이었다고 한다. 학원에서 사교육을 받는건 꿈도 꾸지못했고 대학교도 할아버지께서 여자가 무슨 대학이나고 보내지 말라는 걸 할머니께서 설득하셔서 겨우 대학 졸업을 끝낼 수 있었다고 한다. 졸업 후 몇 년 일을 했지만 그마저도 내가 태어난 후로 엄마는 관두시고 내가 열두 살 때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시기 전까진 줄곧 전업주부의 삶을 살아오셨다. 큰머느리인 엄마는 자연스레 시집 올 적부터 시댁 제사 지내는 일을 도맡아 하였고, 맛벌이를 하시는 지금까지도 제사 음식 장만은 매년마다 대부분 엄마 몫이다. 엄마가 내게 준 상처의 책임을 엄마에게만 전가하기엔, 엄마 또한 남성중심문화의 피해자이다.세대를 막론하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남성중심문화를 뿌리째 뽑기 위해선 남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때 비로소 온전한 양성평등이 이루어질수 있을텐데, 요즘 더 극단적으로 치달는 남녀갈등에 솔직히 해결점을 찾기는 더 어려워 보인다. 성평등에 관한 인터넷 기사만 찾아봐도 긍정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보단, 의미없는 손짓이나 단어 하나를 물고 늘어지며 서로를 헐뜯기 바쁜 현실에 막막하다.굳어져가는 악습에 다음 세대들은 서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것 자체가 불가능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요즘 종종 든다. 나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겨누는 칼날을 치우고 타인의 이야기를 경청해주는 사회로 나아가는게 진정한 양성평등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진부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으나, 양성평등은 말 그대로 한쪽만 동의한다고 이루어질수 없는 평등이기 때문이다. 단지 핑계나 편견으로 치부하지 않고 개개인을 남자, 여자로 부르기 전에 모두 똑같이 존중받아야할 사람으로 대하길 바란다.

4. 장려상-1

99년생 ○○○ : 남성중심적 문화

요즘 사회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힘쓰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먼 거 같다. 애초에 양성평등은 당연하게 사회 속에 스며들어 있어야 하는데 반대의 상황이 당연시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러한 성 불평등은 오래전부터 지속됐던 일이다. 성 불평등을 만든 것은 남성이라고 생각한다. 옛날 시대만 생각해봐도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은 모두 남성이었다.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였고,

이 말은 다르게 생각하면 남성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여성들을 억압해 왔다는 의미다.

나도 여태껏 살아오면서 많은 성 불평등 사례들을 접해왔다. 성 불평등은 단순히 살아오면서 몇 번 봤다가 아니라 매년, 매달, 심하게는 매주, 매일 볼 수 있는 일이다. 점점 자라면서 성 불평등에 대한 나의 생각은 점점 발전되어 왔고, 지금은 성 불평등에 대한 나의 의견, 생각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자리 잡은 거 같다.

내가 유치원을 다닐 때 경험했던 일화다. 나는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까지 맛별이를 하시는 부모님 대신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에서 자랐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 나의 할아버지는 가부장적인 성격의 사람이 이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물 갖다 달라, 술 좀 사와 달라’ 등 온갖 심부름을 시키셨다.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본인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이며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라 생각하셨던 것 같다. 또, 할머니와 여성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자주 하셨다. 할머니가 할아버지와 가끔 말다툼을 하실 때는 ‘어디 여자가 대드냐’ 등의 말씀을 하셨다. 아무래도 기성세대 분들은 요즘 세대의 사람들보다 여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더 심한 것 같다. 그리고 이를 고치기도 더 힘든 것 같다. 그 당시에 내가 할아버지의 저런 할머니를 대하시는 태도를 보고 다행히도 ‘저게 당연하고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다. 솔직히 그때는 별생각이 없이 그저 당황스러워하기만 했지만 점점 자라면서 ‘할머니가 불쌍하고 왜 저런 대우를 받으셔야 하지?’라는 의문을 가졌다. 그리고 깨달았다. 할아버지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지만 내가 바로 잡기에는 할아버지는 나에게 너무나 큰 존재였고 나는 겁이 많았다. 다행히 나의 부모님을 비롯해, 삼촌들과 큰아빠께서 할아버지에게 할머니 존재의 소중함과 잘 대해줘야 한다는 것을 잘 말해주셨다. 그리고 현재 할아버지는 기존의 태도를 많이 고치시고 이유 있는 할머니의 꾸짖음을 인정하시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가정에서는 부부 사이의 성 불평등이 가장 많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남편들이 남성이 부부 사이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우위에 있다는 생각을 고쳐주면 화목한 부부관계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어린 시기에 나는 성 불평등을 인지했다.

내가 초등학생, 중학생 때 경험했던 일이다. 학교 체육 시간에 선생님께서는 남학생 따로 여학생 따로 운동을 하도록 시키셨다. 남학생들은 축구를 하게 되었다. 그때 몇몇의 여학생들이 본인들도 축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축구 같은 운동은 힘들고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여학생들은 피구나 하자고 말씀하셔서 여학생들은 결국 피구를 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여성은 약하고 힘든 건 못한다는 인식이 깔려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렇지 않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었다면 여성 축구선수 같은 운동선수들은 없었어야 한다. 하지만 그들도 남성들과 똑같이 할 수 있었다. 또, 친구들과 점심시간에 술래잡기 같은 놀이를 할 때가 있었다. 여기엔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 모두 있었다. 가위바위보로 팀을 나누는데 어떤 남자아이는 자신의 팀의 여

자아들이 많다는 이유로 분노와 아쉬움을 표현했다. ‘아 여자애들 많아서 지겠네’ 이에 여자아이가 반박했다. ‘우리가 여자인 거랑 지금이랑 뭐 상관인데?’ 여자아이가 맞는 말을 하자 남자아이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담임선생님도 이 일에 대해 남자아이에게 사과를 하라고 하셨다. 이런 일들은 최근에도 나의 어린 동생에게서 들을 만큼 많이 일어난다. 남성들이 여성들을 기본적으로 자신의 밑으로 깔고 간다는 것이다. 과연 남성들이 여성보다 실제로 잘나서 그런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은 ‘잘 모르겠다’다. 설령 그렇다 해도 남녀 사이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봤을 때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시기에 나는 성 불평등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

시간은 흘러서 나는 고등학생이 되었다. 고등학생이 됐을 때 양성평등에 대한 나의 사상과 가치관이 얼추 완성되었다. 성차별은 아직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 한 명이 있었다. 그 친구는 여자에 대한 성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친구였다. 그래서 주변 친구들에게도 그다지 이미지가 좋은 친구는 아니었다. 그 친구는 여성 친구와 조금이라도 다투거나 본인의 마음에 안 들었을 때 특히 더 심하게 말했다. 그래서 나도 그 친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매너까지도 없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도저히 참다 참다 못 참아서 그 친구에게 한마디 했다. ‘앞에서도 못할 얘기 뒤에서도 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얼마나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 아냐고, 또 지금 당장 잡혀가도 할 말 없다’라고. 하지만 그 친구는 전혀 여의치 않아 했다. 그렇다, 이미 머릿속에 여성에 대한 인식이 잘못 박혀버린 것이다. 그 이후로 나는 그 친구를 멀리하였다. 지금은 그 친구가 뭐하고 지내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추억이 없어서 별로 궁금하지도 않다. 그런 사람에게는 언젠가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또, 학교에서 친구가 여자아이와 좀 다투었다. 여기에서는 한쪽의 잘못이 아니라 양쪽 모두 잘못이 있었다. 그래서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후에 친구가 뒤에서 여자 자체를 무시하는 듯한 혼잣말을 하였다. 그걸 듣고 나는 그 친구에게 말했다. ‘물론 그 친구도 잘못했지만 지금 너의 이런 태도도 결코 옳지 않고 여자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친한 친구였기에 그 친구의 기분이 최대한 상하지 않도록 내가 한 말에는 문제가 있다는 걸 알려주듯이 말해줬다. 그 친구는 나의 말이 옳다는 듯 큰 제스처는 없었지만 긍정을 표현했고, 나의 말이 도움이 됐는지 그 친구와 잘 화해했다. 이 시기에는 나는 올바른 성에 대한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올바른 양성평등 문화를 주변에 전하려 했었다.

20살 이후 성인이 되어 사회에 나왔다. 사회에서는 양성평등 문화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반신반의한 상태로 사람들을 만났다. 그래도 대학생 이상 정도면 어느 정도 올바른 양성평등의 인식이 잡혀있는 줄 알았지만 현실은 예상과 달랐다. 내가 군대에 있을 때의 일이다. 우리 부대 안에는 여군이 살지는 않았지만 가끔 외부에서 여군 간부님이 올 때가 있었다. 가끔 여간부님이 병사들에게 일을 지시한 적이 있었다. 일을 하고 난 후 뒤에서 병사들은 ‘여군이 군대를 알겠냐, 여

군이 군인인가'같은 여군 비하 발언을 하였다. 거기다 훈련이나 작전에서 여간부님이 실수를 했다면? 사태는 안 봐도 더 심각했을 것이다. 나의 후임이 그런 말을 했을 때 나는 '여군도 군인이고 우리 간부님이시다. 그러다 영창 간다.'라고 꾸지람을 줬다. 어떤 이는 여군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이트에서 여군들의 얼굴 평가를 하고 있었다. 그들을 군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능력으로 판단하지 않고 외적으로만 판단하고 있던 것이다. 즉, 위와 같은 일들은 모두 여군을 군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대학교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지인에게 들었는데 학과에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는데 남자들만 모아서 얘기했다고 했다. 여성 학우들 중에서는 심지어 학과 내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던 여성분도 있었지만 빠졌다. 이들이 얼마나 서운했을지 감히 상상도 못하겠다. 학과에 남자만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 시기에 나는 아직도 양성평등의 길이 멀다는 것을 느꼈다.

내 경험을 쓰면서 내가 느낀 것이 있다. 우리 가정 즉, 나의 부모님과 관련된 일화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 가정은 그래도 올바른 인식이 잡혀있는 가정이라 너무 다행이다.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자기주장 있고 똑 부러지셨으며 강한 성격이셨다고 했다. 또한,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머니가 더 강하시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가족은 수평적 관계가 잘 형성돼있는 것 같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슬프기도 하다. 여자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인정하는 받는 것인가라는 생각 때문이다. 옛날부터 외적이든 내적이든 매력이 없는 여성은 같은 조건의 남성보다 훨씬 무시되어왔다. 그래도 요즘엔 이런 경우 남녀 가릴 것 없이 모두 같은 평가를 받는 거 같긴 하지만, 이 역시 반대로 생각해보면 슬프다. 안 좋은 일에만 남녀평등이고 좋은 일에서는 아직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나는 다행히도 어렸을 때부터 성 불평등을 인지해왔고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왜 여성들이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하지만 이유는 중요하지 않은 거 같다. 중요한 것은 잘못된 것을 빨리 바로잡는 것이다.

이렇듯 올바른 양성평등 마인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성 불평등을 간접적, 직접적 경험을 통해 문제를 인식하고 느껴야 하고, 여러 정보와 지식을 얻으며 무엇이 옳은 건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 양성평등에 대한 올바른 마인드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과정이 간단하지는 않다. 그래서 더 문제다. 당장 문제를 알아채도 본인이 직접 경험해보지 않는 이상 와닿지 않는다. 그러므로 한시라도 빨리 양성평등이 실현됐으면 한다. 만약 이것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등의 일이었다면 기성세대의 도움이 필요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는 오히려 반대다. 기성세대들이 가장 큰 문제다. 나는 젊은 층의 힘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미래를 이끌어 갈 사람들은 결국엔 지금의 젊은 사람들이다. 현재 윗물을 바꾸는 건 어렵지만 앞으로 윗물이 될 아랫물을 잘 형성해놓으면 결국 모두 맑아진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인식을 가지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모두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는 결국 모두 같은 인간이다. 인간은 모두 평등한 대우를 받

은 권리가 있다. 사회에서도 힘을 쓰고 있고, 학교, 캠퍼스 내에서도 힘을 쓰고 있다. 남성중심적인 사회에서 남성들이 여성들의 고충을 더 자세히 알려면 직접 여성의 경우를 경험해보거나 그들의 상담자가 되어보면 더욱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남성과 여성은 당연히 다르다. 서로의 차이를 인지하고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모두 동등한 눈높이에서 봐야 한다. 모두가 조금씩 노력해준다면 아직까지 사회에 남아있는 성차별이란 돌맹이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양성평등이 하루빨리 실현돼 남녀가 서로 같은 높이에서 마주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5. 장려상-2

97년생 ○○○ : 남성중심적 문화

인류의 역사는 수많은 계급사회와 상하의 구분 등 불평등에 역사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이런 불평등을 가지고 있는 나라나 사회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보편적으로 근현대라고 말할 수 있는 20세기 이후부터는 많은 나라들에서 남녀 간 인종 간 계급 등의 차이를 파괴함으로 평등사회를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현실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등이란 무엇일까요? 평등이란 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은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즉 평등이란 말은 차이는 생길 수 있으나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에서도 직업이 평등하다거나 지위가 평등하다고 말들은 하겠지만 진정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제 생각에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공부의 양이 다르고 일하는 시간이 다르며, 같은 직업이어도 일하는 것에 대한 느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성평등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양성평등이 잘 되어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상을 보면 그렇기 않은 부분 또한 다수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백의의 천사라는 말은 간호사에게 하는 말 같지만, 이 말은 여성 간호사에게 말이지 남성 간호사에게는 이런 호칭이 쓰지 않습니다. 일단 이런 말이 과거 여성들이 전쟁 시대 때 남성 군인을 도와주는 여성 간호사들을 평가하는 용어라고 볼 수 있는데 현대에 와서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환자를 치료를 위해서 수고하는 의료인으로 볼 때 여성들 입장에서는 불쾌한 단어일 수도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단어 중에는 유모차는 여성(모)에게 육아 책임이 있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으므로 유아가 중심이 되는 표현인 유아차가 있고 미망인은 남편과 함께 죽어야 할 것을 아직 죽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故○○○의 배우자라는 대체어가 있다. 또한 집사람이나 안사람은 밖에서 일하는 사람과 집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므로 차별을 받을 수 있기에 배우자라는 대체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에서도 게임 내에 힐러(치유사)나 마법사 같은 후위 직업들은 여성이 담당하고 옷 또한 얇은 옷을 입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게임이라는 것이 '대부분이 남성성이

강해서 이런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서 여성이 사회진출도 많이 하고 익명성이 거의 보장되는 곳에서 남성성, 여성성을 따지면서 만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명작이라고 하는 게임들은 줄거리와 연출이 좋기 때문이지 그 캐릭터가 남성이고 여성이고 옷이 어떻고 그런 것으로 명작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는 성에 관련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가 남성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에 관련된 문제는 묻지 마 살인과 비슷해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일어날 수 있듯 성에 관련된 문제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진정한 양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싶다면 추정하거나 오해하지 않고 항상 자기 자신을 먼저 보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평등하고, 안정된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남성이지만 로봇이나 액션보다는 몽실몽실한 솜털 같은 동물이나 러브 코미디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소년만화보다는 소녀만화에 열광했고 물론 제 주변 학우들은 만화를 보면 대부분이 탑블레이드 같은 소년만화보다는 달빛 천사나 카드캡터 체리 등등 소녀만화를 주로 보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핏대를 살 돈이 있다면 털이 많거나 말랑말랑한 인형을 가지고 싶어 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서는 처음에는 형과 같이 블록이나 로봇들을 사주셨지만 어느 날부터 제가 그런 것들에 큰 흥미 없다는 것을 아시고 제가 더 좋아하는 예쁜 인형을 사주셨습니다. 또한 저는 초등학교 때 체육시간이 되면 선생님이 운동장에서 아이들과 축구를 하라고 강요할 때마다 저는 “운동을 너무 못해서 민폐가 돼요.”라고 말씀드리고 피하려 했는데, 이 말씀을 들은 선생님은 “남자가 돼서 운동도 못해?” 하고 혼내시거나 혹은 혼자 중얼거리시는 것을 들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사람마다 잘하는 것, 못 하는 것, 하고 싶은 것, 하기 싫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개성정보다는 선생님 자기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남성상을 고집하거나 생각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온 체육 시간에 같은 말로 빠지려고 하자 선생님께서서는 저를 강제로 넣어서 축구를 하게 했습니다. 그날 저는 하기 싫은 축구를 하다가 배에 정통으로 공에 맞아 쓰러졌고 그 이후로 선생님께서 저에게 “남자가 어찌고저찌고”하는 말을 하지 않으시고 저의 개성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가부장적이지 않습니다. 빨래나 설거지는 아버지께서 하시고 요리도 저나 형이 하고 청소는 거의 다 같이 하는 분위기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몸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도 저도 형도 어머니께 더욱 친절하고 더욱 잘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실천합니다. 다른 친구들의 가정에서 잠을 잔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거의 모든 집안일을 어머니께서 하시더군요. 저는 같이 설거지를 도와드리면서 “집안일이 많이 힘드시죠?” 같은 평범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집이 어머니께서 집안일을 한다는 것을 듣고 놀랐습니다. 저희 아버지 쪽 집안이나 어머니 쪽 집안 둘 다 집안일에 대해서는 서로서로 나눠서 하자는 주위였기 때문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과거부터 우리나라에서 내려온 가부장적 남성중심적인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안일이 뭐가 대수라고 그러냐.”라고 하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어려운 것이 집안 일입니다. 설거지도 쌓아두고 나중에 하려고 하려면 힘들고 청소도 오래 안 하면 더욱 꼼꼼히 봐야 하고 빨래 역시 그러해서 집안일이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집안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가정 시간에 바느질을 배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바느질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기에 괜찮았지만, 동성 학우들은 바느질을 왜 배워야 하느냐며 따지기도 했는데, 선생님은 “어른이면 기본적으로 자기 옷은 자신이 꿰맬 줄 알아야 한다.”라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때 많은 남성이 집안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 또래 이성 학우들이 집안일에 대해서 잘 안다는 것은 아니지만, 관심이 0인 것과 0.1인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 가정 시간에도 이성 학우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했었고 모르면 물어보면서 과제를 완료하는 반면 동성 학우들은 거의 관심이 없고 빨리하는 학우가 있으면 내 것도 대신 해달라는 듯이 말하는 학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웬만한 요리는 어느 정도는 할 줄 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남성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희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는 분 중에는 요리는 할 줄 모르면서 배우자분께 하루 세끼 다른 반찬을 달라고 하는 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습시다. 세끼 다 다른 반찬으로 만들어 먹는다면 만드는 분은 자기 시간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또 그분은 요리는 여성만이 하는 것이라면서 남성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물을 마시는 것을 제외하고는 주방에는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저는 ‘혹시 제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친구들은 어머니가 요리를 해주시면 설거지와 청소를 해준다는 말을 듣고 ‘내 또래 사람들은 옛날 분들과는 다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그래도 옛날과는 많이 바뀌어서 집안일은 어느 정도 나눠서 하는 가정이 많이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전체를 보면 매우 적은 숫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작은 것부터 조금씩 바뀌어 나아가면 세상도 조금씩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결혼을 하면 배우자와 같이 집안일을 공유할 것이며 더 나아가 제가 회사에 사람을 뽑을 위치에 있다면 남녀 불문하고 공정하고 평등하게 개인 정보가 우선이 아닌 일을 잘하는 직원으로 뽑을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많은 불평등이 존재하지만 이런 불평등을 바꾸어 나가기 위해 세상은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변해가는 세상에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더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남자가 되어서” 혹은 “여자가 이러면” 같은 남녀를 구분하는 확정적인 단어 선택이 아닌, 사람 자체로서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생각하는 것에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바른길을 만들어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6. 장려상-3

1996년생 ○○○ : 남성 중심적 문화와 나

1990년대 여자로 출생한 나는 태어날 땐 모두가 기뻐했을지라도, 모두의 기쁨이 내가 살아온 인생을 기쁘게 하진 못했다. 애석하게도 위로 다섯 살 터울의 오빠가 하나 있다. 어린 시절 나는 오빠가 있다는 것이 너무 든든하고 즐거웠고, 행복했다. 어린 나는 오빠가 마냥 좋았다. 같이 요리를 하고, 팽이 게임을 하며 깔깔대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고, 즐거웠던 나날들이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다. 우리 집은 주변 친구들 집과 비교해 보자면 많이 개방적이고, 풍요롭고, 평화로운 집이었다. 그 시절이 나에게서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시절이었다.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다고 했던가.

내가 줄곧 오빠만을 소개한 이유는 바로 차별 때문이다. 가족들 간에 사이는 무척 좋았지만, 내가 중학생일 적에 이상한 무언가를 느꼈다. 이제 시작된 건지, 이제서야 알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다. 어머니의 밥상에서 고기반찬은 모두 오빠에게 가있었고, 식후 과일은 오빠 그릇에만 넘쳐났다. 맛있는 과자는 나 몰래 오빠 손에 쥐여 주었고, 나만 빼고 외식을 하곤 했다. ‘오빠는 몸이 약하니까 더 신경 써서 먹어야 하고, 많이 먹어야 해.’가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던 차별의 이유였다. 차별의 정도는 몇 년이 지나도 거기에서 거기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거세게 쏟아지는 물을 손으로 담아낼 수 없듯이 관계는 견잡을 수 없게 틀어졌다. 십여 년이 넘는 차별의 이유는 내가 대학생이 되어서야 ‘오빠가 장남이었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딸은 시집가면 그 집식구이고, 장남은 장례를 치러주잖아.’, ‘아들은 죽을 때까지 온전히 내 자식이야.’

오빠조차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기세등등하게 나를 온전히 무시하고 있었다.

어머니도 같은 여자로 그렇게 자라면서 여자로서의 삶을 감내해왔으면서, 어떻게 자기 딸에게도 대물림을 할 수 있을까?

나의 어머니가 흔히들 말하는, ‘옛날 생각’, ‘옛날 사고방식’으로 누구보다 자유롭고, 진취적으로 살아내고 싶은 나를 철저히 가둬버렸다.

나의 주변 여자 친구들은 빠짐없이 이러한 ‘차별’을 겪어보았다. 가정 내 성차별 외에 또 빠짐없이 겪어본 것은 ‘성희롱’과 ‘성추행’이다. 이걸 물론 사회에서의 이야기다.

여자로 태어나서, 수많은 추파, 성희롱, 성추행은 수도 없이 당해왔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것 또한 내가 가정 내에서도 겪었던, “성-역할의 고정관념”이 사회에 깊게 고착화되어 있어서 야기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자는 힘쓰는 일을 하고, 여자는 집에서 살림을 하는 역할이 사회에 고착화

되어, 계층에 따른 위계질서를 이루었고, 고착화된 계층구조가 흔들리지 않아야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 제 밥그릇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강하고 주체적인 사람을, 여자는 연약하고 수동적인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있다.

2018년, 여성들의 뜨거웠던 외침을 모두가 기억하는가?

탈코르셋 시위와 미투 운동이 있었다. 수많은 여성들이 스토킹 당하고, 강간당하고, 살해당해왔다. 면접에서 차별적인 질문을 받기도 했으며, 희롱 당해왔다. 페미니즘은 사회에 떠오르는 단어가 되었고, 페미니스트라는 단어에 사회는 예민하게 반응하였다. 페미니즘은 '여성의 인권을 남성과 평등하게 하라, 안전을 보장하라'라는 의미이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인간이 가져야 할 기회와 평등, 남성만이 우선시 되어 왔었다.

최근에 읽은 책, '피터 싱어'의 '동물 해방'이라는 책에서는 '동물에게 권리가 있다.'라는 주장이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는 논변을 조롱하기 위해 사용된 적이 있었다고 얘기한다. 여성에게 권리가 있다면 동물에게도 평등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논증은 건전하지 못하다. 인간의 평등에 관한 논변을 동물들에 확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성을 폄하한 주장이었다. 이 책은 21세기에 쓰인 책이다. 예전과 인식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내가 철학을 공부할 때였다. 다양한 철학자를 탐구하고, 그들이 남긴 명언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인간은 그들이 살아있던 때와 지금과 똑같다는 것이었다. 그들이 주는 가르침은 필요한 상황에 꼭 맞아떨어지고, 그들이 주는 물음은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인간들의 고민이다. 이처럼 나는 '동물 해방'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내가 철학을 공부할 때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생각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다.

시위 이후, 많은 여성들은 예쁨의 강요하는 사회에서 코르셋을 던져버렸고, 그들은 여성 인권에 누구보다 앞선 든든한 롤 모델이 되었다. 그리고 '82년생 김지영'이란 소설책은 영화화가 되었고, 페미니즘에 관련된 책은 우후죽순 쏟아져 나왔다.

내가 겪어온 여성의 삶, 사회에서 요구하는 여성상, 받는 대우, 차별. 많은 남성들이 질타를 하곤 했던 소설, 수많은 여성들이 공감을 했던, '82년생 김지영'의 삶과 유사하다. 나를 포함한 수많은 여성들이 내는 목소리로 사회는 점점 움직이고 있다. 여성들의 큰 목소리에 많은 이들이 좋은 영향이건 좋지 않은 영향이건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긍정적인 효과라고 얘기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갖게 접하며 조금씩 하는 공감이, 큰 공감이 될 것이며 더욱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연료가 되어줄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이 내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작은 관심이며, 역할을 바꿔 생각하는 용기와, 고찰하는 행동이다. 변화는 작은 생각에서 시작된다. 어떠한 주장을 맞닥뜨렸을 때,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적절히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고 결론을 도출할 때 결과 값이 크다.

사회는 갈등을 조장하지 않고, 그동안의 차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여성에게 기회가 많아지고 평등을 향해 나아갈수록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고,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사회를 이룩 시킬 수 있을 것이다.